

행복나르미 학부모신문

응답하라 인천교육

교육이 행복한 교육이
과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치열한 삶은 노련없는 선생님
입생. 편후에 허덕이는 아이들...
한눈에 재직을 주고 행복한
교육을 익히고 있는데 아닌지...

교육정책
교육이
필요해요.

자유학기제라는 이름 아래 자칫 방임으로
흔들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가 학부모로서
없이 않습니다. 일차적인, 즉각적인
계획이 아닌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아이들
에게 도움이 되는 과정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을 시선 MEMO-TY
있게. 개발해주세요.

"교육지 백년대기"
어떤 교육정책이든
꾸준히 지속해서
'백년대기' 한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중학교 1학년만 하는 건가요?
3년 내내인가요? 아이들이
공부하는 시간을 빼기지는 안할
까요? 어차피 중학교 가면
입시준비해야 할텐데...
문고림이 짜진 후에 우리 아이
들을 위한 테스트를 출제하면,
항상 실험대상인 느낌 조금
없어졌음.ㅠㅠ

선생님이
승진점수에 매달리지
않는 방법 없을까요?

듣내고 맞는 형식,
맞은 보충하면 좋게
좋아요.

학부모가 변하고,
학교가 변하고,
선생님이 변하면 ...
우리 아이들 좀더
행복해 질 거예요.
체질의 인격은 조금더
경쟁해야 합니다.

학생 자치활동
지원해 주세요.

Check it!
학교비가 높으면
아니라, 선생님 병이
높아서 학교 건립이
어려워요. ㅠㅠ

교육지 백년대기
◎ 자주 타꾸지 말아주세요
♡

행복학교가 무엇인
지 각 모르겠어서
개념은 잡아주세요
PIZ

자주 타꾸는 교육정책이
우리 아이들이
희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ㅠㅠ

청년 동아리 활동 프로젝트
저금 지원 ~ ㅠㅠ
꿈과 끼를 키우는 자치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 지원해 주세요.

이성. 아 행복교육
기르려서 되는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만방이 되는 목욕이
어디 디야 할것입니다.

Check it!
치매하게 애들
만약하게 가지고
그려서 아니요.
중학교 의무교육 전면발행!

행복교육!
중학교 의무교육부터

행복나르미
2면 내가 만난 학부모 참여
4면 한눈에 보는 학부모 학교 참여
8면 학부모 기지단이 간다!
10면 현장체험학습 변화의 바람

자유학기제, 혁신교육, 행복교육 ~
계속되는 비슷한 얘기를 아십니까?
타버린 전채이라도 제대로 설계하
고 실행하, 실행에 옮겨주세요.
각각이 다르게 바뀌는 교육정책에
학생과 학부모의 학습에 시음
감겨서 합니다.

내년 30% 이하의 아이들은
버려지는 년생에서
행복교육 ... 가능할까요??

• 아이들의 입장에서 여러가지
다양한 활동을 통해 꿈.끼.
참여태도. 진로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것이다....
대학진학 목표로 하는 학생.
부모 입장에서 배신 수업 부분
만큼 사교육이 더 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내용없는 학부모
교육 부탁드립니다
♡

내가 만난 학부모 참여

순풍에 돛 달고 동수초 행복배움학교는 순항 중

‘이놈의 빼빼로데이는 대체 누가 만들어서 해마다 고민하게 만드는 거야.’

애들끼리 학교에 빼빼로를 가져와 서로 나눠먹는 게 당연한 날이 된 11월 11일, 올해도 아이 손에 들려 보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한숨 섞인 고민을 하게 되었다. 이 고민은 올해만의 고민도 아니고 나만의 고민도 아닌 터라 어떤 해결책이 필요했다.

“우리 어머님들, 이번 기회에 빼빼로데이 없애버립시다. 못 가져 와서 친구들이랑 나눠 먹지 못하는 애들도 있고요, 선생님들도 빼빼로 가져오는 거 싫어하시는 분 많잖아요. 우리학교만이라도 그런 거 없애고 따뜻한 아침 맛이 날로 하는 게 어때요? 아침 안 먹고 오는 애들도 많으니 따뜻한 가래떡 나눠 주면서 한 번 씹어안아주는 걸로요.”

학부모들의 이런 생각을 교장선생님께서 교사회의를 통해 흔쾌히 받아들여 주셨고, 학부모들과 선생님들은 이 행사를 어떻게 진행할 건지 서로 의견을 나누었다.

쌀쌀한 가을 이른 아침, 아직 아이들

의 등교시간 전 이른 시각,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가래떡이 도착했고 예상치 못한 많은 인원의 학부모들이 어느새 팔을 걷어 부치고 가래떡들을 팩에 담아 척척 옮겨놓는다. 분주한 사이 인사하러 오신 교무부장 선생님의 커피들 드셨냐는 질문에 장난기 섞인 어느 엄마의 대답,

“너무 바빠서 못 마셨는데 선생님께서 타주시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커피포트에 물을 끓이고 커피를 준비하시는 선생님

“어머! 저는 블랙 마시는데요.”

“네네, 블랙 몇 분인가요?”

열 잔도 넘는 커피를 타서 쟁반에 올려 여기저기 엄마들에게 나눠 주신다. 가슴이 따뜻해짐을 느끼며 학부모들 역시 아이들보다 앞서 따뜻한 아침 맛을 받고 있는 듯 했다.

자, 이제 정리한 떡 상자를 들고 캐릭터 복장으로 변신한 엄마들과 선생님들이 아이들 맛을 준비를 한다. 어느 때와 같이 하나, 둘 아이들이 교문을 향해 들어온다. 그런데 눈 앞에 펼쳐진 풍경.....

짜잔!!! 오늘 무얼 하는 걸까? 다 누구



지? 교문으로 들어오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준비하고 있던 아이들의 적잖이 당황스러워하는 눈빛이 멀리서도 느껴진다. 한꺼번에 많이 나와 계신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고 아이들은 기대반 놀람반의 걸음으로 걸어온다.

“친구들아! 사랑해! 자, 하이파이브!”

잡이 털 깬 듯 무표정하게 지나가는 아이, 놀라서 흠칫 물러나는 아이, 활짝 웃으며 달려와 안기는 아기 같은 아이, 여러 명이 우르르 담임선생님께 매달리는 아이들, 캐릭터 복장이 누굴까 다가갈 말을 건네 보고 졸졸 따라다니는 아이, 떡이 맛있다고 더 달라는 아이 등등 왁자지껄 우리의 아침은 시작되었다.

아! 살아 움직이는 학교란 바로 이런 것이구나! 나의 느낌은 정말 그랬다. 역시 학교는 아이들을 위해 존재해야 하며 아이들의 웃음이 있어야 비로소 진정한 학교다. 나는 지금껏 이런 학교의 표정을 본 적이 있었나?

행복배움학교 지정과 학부모참여사업 선정 후 어언 일 년이 지나가고 있다.

학교 안팎으로 갑자기 생긴 많은 활동

들과 연수, 교육 등 연예인 능가하는 뽀뽀한 일정을 소화하기가 너무 벅차고 힘들었다. 또 어떤 일을 해야 할 때면 왜 이런 걸 해야 되는 건지, 학부모들한테 너무 많은 걸 하라는 건 아닌지 원망 아닌 원망도 했고, 학부모활동 하면서 본의 아니게 타인과 부딪히게 되는 일들도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이 모든 것들이 아이들을 위한 일이라고는 하지만 과연 진정으로 아이들을 위한 일인지 혼자 생각이 많았다. 하지만 이날 아침, 호기심 가득한 눈을 깜빡이며 어리둥절해하면서도 달려와 선생님 품에 안기는 아이들의 천진한 얼굴에서 나는 알 수 없는 가슴 벅참을 느꼈다.

모든 위엄과 권위를 버리고 아이들에게 달려가 하이파이브를 외치시며 환하게 웃으시는 교장선생님의 모습은 바로 아이들과 학부모와 교사가 하나 되는 삼위일체의 그 순간이라고 말하고 싶다. 이것이야말로 행복배움학교에서 추구하는 이상적인 모습이 아닐까?

한선미_동수초 학부모



가래떡 데이 준비



아침맛이 인사

중학교 무상급식을 바라며

저는 계양구에 살고 있고, 중1 딸아이와 초등4 아들을 둔 학부모입니다.

3년 전 즈음, 서울 잠실에 사는 시누이로부터 서울은 중학교도 무상급식이라 조카들 급식비를 안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울 부자 동네 아이들도 급식비를 안낸다는데 우리 인천도 곧 무상급식을 하겠구나’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이맘때, 교육청에서 책정한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이 시의회에서 전액 삭감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결과에 다소 놀랐습니다.

당시 제 딸도 곧 중학생이 되는 터라 저는 가만히 앉아서 바라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 한해 중학교 무상

급식을 위한 거리 서명 운동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고 애를 썼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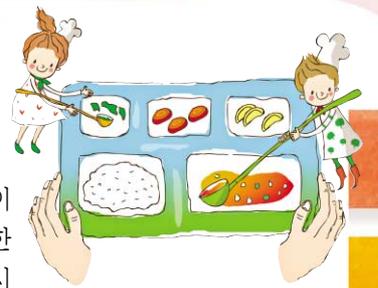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은 다양한 반응이었는데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의 기대가 제일 컸고, 손주를 두신 할머니, 할아버지, 내 아이는 다 컸다고 하면서도 서명에 동참하시는 중년의 아저씨, 아주머니 그리고 부모님 부담을 덜어 드리고 싶어 하는 학생들까지 모두들 중학교 무상급식을 바라는 마음은 간절했습니다. 무상급식을 하면 좋겠지만 인천시가 빚이 많아서 걱정이라는 분들도 계셨는데 서울이나 경기도는 빚이 없고 돈이 남아서 무상급식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 인천 시민들 세금 꼬박꼬박 잘 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민세도 2배 넘

게 올랐습니다. 돈이 없어 무상급식 못하는 변명을 우리 시민들이 언제까지 들고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천이 중학교 무상급식 전국 꼴찌라는데 꼭 해결해야 합니다.

저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에게 건강한 밥 한 끼 꼭 챙겨주겠다는 의지! 그 의지만 있다면 돈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을 비롯해 시장님, 시의원님들께서 조만간 그 의지를 우리 인천 시민들에게 꼭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정덕_계양구 학부모



우리가 만난 학부모 참여

학교를 품은 학부모, 마을을 만든다



어석원_공보담당관 교육홍보팀

강화는 지역적 특성상 작은 학교가 많다. 일정 규모를 유지하지 못하는 학교는 폐교가 되거나 다른 학교에 흡수된다. 폐교 위기의 학교였던 양도초등학교는 이제 다른 지역에서 전학 오는 학교가 되었다. 그 과정에 함께한 진강산 마을학교 연합 학부모회(양도초, 조산초, 동광중, 산마을고)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 학부모의 학교참여 어찌 생각하세요?

김현숙: 양도초는 계절학교를 운영해요.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서 뜨개질을 알려준다던지, 책을 읽어주는 활동을 하는 것이 참여의 시작이었어요. 처음에는 학교에서 준비한 계획을 따라가다가 엄마들끼리 기획을 하게 되었어요. 시작은 독서캠프였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학부모의 힘으로 했습니다. 간식과 식사, 그리고 관련 프로그램까지요. 이제 양도초 독서캠프는 엄마들이 참여하고 기획하는 프로그램으로 누구나 생각해요. 학부모 스스로 일을 기획하고 학교의 교육활동에 맞추어 참여하는 것이 진정한 학교 참여라 생각해요.

유상용: 전교생이 20여명에 불과하던 양도초가 계절학교 등을 운영하면서 도시 학생들이 많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학교지만 가족과 같은 학교, 그래서 교사만이 아니라 학부모도 당연히 함께 학교에서 아이를 키우자라는 분위기가 생겨났어요.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선생님들의 생각과 학부모의 마음이 만난거죠. 학교와 가족, 지역이 따로 노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겪은 양도초의 분위기는 '마을을 열고 손내민 학교, 그 손 맞잡고 움직인 학부모'라고 말하고 싶네요. 이런 것이 학교참여 아닐까요?

싶은게 묘하게 교차되어 있어요.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산마을고는 대안학교라서 더 하겠지만 학부모들이 개입하는 여지가 많아요. 교육과정도 개입 가능하죠. 인사권까지 학부모들이 요구합니다. 교사 입장에서 부담스럽죠. 교사, 학생, 학부모가 3주체라는 의미에서 학부모의 이런 참여가 가능하겠지만 사실 이럴 땐 조금 거리를 두고 싶어요. 도와주었으면 하는 마음과 거리를 두고 싶은 마음 그 접점을 찾는게 중요해요.

◎ 학부모의 학교 참여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학부모의 학교참여는 과연 어디까지 가능할까 라는 것으로 이어진 것 같아요. 어디까지가 적정 선일까요?

안성균: 교육과정, 인사권, 재정 등등 거의 모든 걸 학부모가 같이 참여하여 논의하고 의결하는 것까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약간 보조적인 입장에서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보조적 입장이지요. 대안학교란 특수성이 있긴 하지만 학부모들이 좀더 들어오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정이 원활하지 못하게 일반적이지요. 결국에는 그쪽으로 가는게 맞아요. 지역에 있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학교에 참여해서 목소리를 더 내야합니다.

유상용: 약간 벗어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양도초의 많은 학부모들은 도시에서 대안적인 요소를 갈구하던 분들이예요. 결국 양도초에서 접점을 찾은거예요. 양도초 교직원분들과 합이 잘 맞아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했죠. 하지만 학교가 항상 학부모와 마음이 맞을거라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학교를 넘어 지역에서 아이들을 키워보자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양도초도 백여년전 주민들이 스스로 만든 학교예요. 지금은 많이 퇴색되었지만 태생이 지역 주민들이 주체인 학교인거죠. 양도초를 졸업한 아이들이 지역의 동광중에 진학하고 산마을고의 방과후 학교도 이용하면서 지역에서 자라고 있어요. 지역 모임도 만들어지고 학부모가

준비한 캠프도 진행하면서 부모들이 점점 가까워짐을 느껴요. 지역의 관계가 생기니 학교에 참가한다는 것도 있지만 학교가 아닌 지역에서도 아이들이 안심하고 지내게 되더라고요.

김현숙: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해요. 저희들이 '진강산마을학교'라는 양도면 4개 초중고 연합학부모회를 구성한 이유도 학교와 학부모라는 기존의 관계에다 아이들이 함께 돌봐가는 '마을'의 요소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방과후 프로그램 등으로 학교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줄일 수 있고, 학부모들은 학교에 너무 의존하지 않고 또 개별 가정의 부담도 덜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부족한 마을의 요소를 살려내어 학교와 부모와 사회가 서로 적절한 역할을 하면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학부모의 학교참여도 적정선을 찾아가기 쉬울 것 같습니다.

◎ 학부모의 학교참여나 마을 학교 운영 등은 모두 학부모를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건강한 학부모는 어떤 학부모일까요?

유상용: 나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옆 사람도 같이 한다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내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옆의 부모와도 인간적인 관계를 맺는게 중요해 보입니다. 제대로 된 이웃이 되는 거예요. 이익으로 만난 관계가 아닌 이웃사촌이 되어야 해요. 그 안에서 아이들도 보고 배워요.

안성균: 학부모와 부모는 나누어서 말하는 광고 카피가 있었어요. 학부모가 아닌 부모로서 아이들을 대하고 부모로서 마을 아이들을 대하는게 조화롭고 이상적이에요. 부모의 입장, 부모의 눈으로 교육을 받고 아이들의 문제도 바라보고 해결하는게 필요해요.



김현숙 양도초 운영위원
(현 양도초, 동광중 학부모)



안성균 산마을고 교장
(현 양도초 학부모)



유상용 동광중 운영위원
(전 양도초 학부모, 현 동광중 학부모)

한 눈에 보는 학부모 학교 참여



학부모의 참여로 함께가는 인천교육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학부모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활성화를 위해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공모사업 외에 교육청 자체로 「함께하는 학부모회」와 「학부모 동아리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함께하는 학부모회」는 2개 이상의

학교 학부모회의 공동 또는 협력사업으로 학부모회의 활동성이 강화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2015년 기준 22개교가 참여한 9개 학부모 연합회가 구성되었다.

이중 마장·부마 연합 학부모회는 소외계층 및 다문화가정 학생 학습지도 및 책임어주기,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가을산행 등을 마련하여 눈길

을 끌었다. 행복배움학교 연합 학부모회는 행복배움학교의 학부모에게 필요한 다양한 학부모연수를 진행하여 학부모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창신·발산·원당 연합 학부모회는 연합학부모회 만남의 날을 진행해 3개 학교 학부모, 교직원들이 모여 격의 없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천 동구 연합 학부모회에서는 최근 학교에서 새롭게 각광 받고 있는 회복적 생활교육에 대한 학부모 대상 학습 모임을 구성하여 꾸준한 모임을 갖고 있다.

「학부모 동아리 지원사업」은 학부모회의 규모보다는 자발성이나 주체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7개 학부모 동아리를 선정 지원했다. 2016년에는 단위학교 뿐만 아니라 연합 학부모 동아리도 신청 받아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공모사업 외에도 학교운영위원회, 자원봉사 및 교육기부활동 등과 같은 기존의 학부모사업 역시 내실을 기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다.

홍선미_학부모지원센터 학부모지원전문가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사업 현황

■ 2015년도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지원 사업(특별교부금)

학교급	학교명	학교급	학교명
초	인천도림초	초	인천문학초
	인천명현초		인천동부초
	합일초		인천서면초
	인천해원초	중	임학중
	인천부현동초		부평서중
	인천후정초		학익고
	인천부개서초		계 (13개교)

■ 함께하는 학부모회 학교교육 참여 사업

연합 학부모회명	주축교	참여 학부모회
마장·부마 연합 학부모회	인천마장초	인천마장초, 인천부마초
행복배움학교 연합 학부모회	인천석남중	인천석남중, 인천동암중, 선학중
창신·발산·원당 연합 학부모회	인천창신초	인천창신초, 인천발산초, 인천원당초
인천 동구 연합 학부모회	화도진중	화도진중, 재능중, 인천동산중
진강산 마을학교 연합 학부모회	산마을고	산마을고, 동광중, 양도초
만수-인수 연합 학부모회	인천만수초	인천만수초, 인천인수초
산곡여중-부곡초 연합 학부모회	산곡여중	산곡여중, 인천부곡초
도담도담 연합 학부모회	인천신흥초	인천신흥초, 인천신광초
Do Dream-사랑 연합 학부모회	인천동수초	인천동수초, 인천부평남초
총 9개 연합 학부모회 (22개교 참여)		

■ 학부모동아리 학교교육 참여 지원 사업

학부모 동아리명	학교명
『Mom & Student』 디베이트 Club	인천서화초
글벗누리	인천남촌초
놀이하는 자연에서 (놀.자.)	인천계산초
도담도담	부평동중
상정 숲사랑	인천상정초
책이랑 엄마랑	인천부평동초
희망 채색 '설레임'	인천먼우금초
계	7개교



상정초 학부모동아리 상정 숲사랑

창신 발산 원당 연합 학부모회 숲체험 독서캠프



서화초 학부모 동아리 디베이트 클럽



먼우금초 학부모동아리 희망채색 '설레임'



▶ 학부모 학교 참여(예)

» 학교교육 모니터링

- 학교교육계획 수립 시 의견 제시
- 학교교육과정, 생활지도, 학부모 부담경비 등 모니터링
- 학교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

» 학부모 자원봉사

- 학생, 학교, 나아가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활동
- 교통지도, 학부모 명예사서 등 학교운영 지원
- 학부모 역량(독서지도, 상담 등)을 활용한 다채로운 봉사활동

» 학부모교육

- 부모역할, 사교육 경감, 독서교육, 진로교육, 자녀관계 등
- 가정의 교육적 기능 강화
- 지역사회나 인근 학교 학부모회와 프로그램 공유하면 효과적

▶ 학부모 학교 참여 십계명

- 1 학부모 참여는 자녀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
- 2 내 아이만이 아닌 우리의 아이들을 잘 키우겠다는 마음으로 참여
- 3 학교와 선생님 존중, 협력
- 4 학부모의 권리와 함께 책임에 대해서도 생각
- 5 교육주체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참여
- 6 학교와 적극적으로 소통
- 7 가정에서의 학부모 역할 충실히 수행
- 8 평소 자녀와 많은 대화
- 9 나 하나쯤은이라는 생각보단 되도록 많은 학부모 참여
- 10 학부모교육 등에 지속적인 참여 항상 배우고 소통

소통과 공감의 <인천학부모지원센터>

통합 홈페이지 오픈

“학부모의, 학부모에 의한, 학부모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참여 지원
인천학부모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인천학부모지원센터



소통과 공감의

인천학부모지원센터

센터소개

학부모 학교참여

학부모 교육

학부모 상담

학부모 모니터단

학교운영위원회



인천학부모지원센터

☎ 420-8111/420-8446

남부학부모지원센터

☎ 770-0179/770-0116

북부학부모지원센터

☎ 510-5418/510-5479

동부학부모지원센터

☎ 460-6385/460-6314

서부학부모지원센터

☎ 560-6663/560-6678

강화학부모지원센터

☎ 930-7816

1. 학부모 학교 교육 참여 지원

학부모회 활동 지원
 찾아가는 학부모회 컨설팅 지원
 학부모 네트워크 지원



2. 학부모 교육

학교로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직장·지역사회로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학부모 자생단체 역량강화 교육



3. 학부모 상담

온·오프라인 학부모상담 지원
 (개인상담, 집단상담,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4. 학부모 지원 정보 제공

자녀교육 정보, 교육정책 정보, 각종 사례 정보



우리 이렇게 학교와 함께 합니다

행복한 배움을 꿈꾸는 남구 사람들



남구교육희망네트워크(대표 천영기) 주최하고 인천 남구청, 남구 의회와 인천광역시교육청이 후원하는 행복배움포럼이 지난 10월 28일(수), 남구 평생학습관에서 진행되었다.

행복배움포럼은 남구가 2015년에 교육혁신지구로

선정되면서 막대한 기대를 가진 남구의 사람들이 모여 한 달에 한번 생소한 교육혁신지구에 대해 알아가고 함께 할 수 있는 일도 모색하기 위해 만든 모임이다. 현재 이 포럼에는 시민사회단체 회원, 학교운영위원, 일반 학부모, 마을기업, 개인 공방 등 1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그동안 포럼은 남구지역사회간담회,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초청강연회, 남구교육에 대한 진단 토론회 등을 진행해 왔으며, 이번엔 안승문 서울시 교육자문관을 초청하여 '교육혁신지구의 꽃, 마을교육공동체'란 주제로 강연회를 열었다.

「핀란드 교육혁명」을 출간하고, 현재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안승문 자문관은 '강북구의 학부모 창의마당', '노원구의 마을학교', '오산의 학교 밖의 학교' 등 전국의 우수사례에 대해 소개하면서 "늦게 시작한 지역이 참신하게 잘 진행

하고 있다. 남구도 후발주자의 이점을 잘 살려 어디에도 구애받지 않고, 남구만의 특색을 살리면 다른 곳 못지않게 잘 할 것이다"라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민·관·학 거버넌스에 성패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회 이후 천영기 대표는 "1년 동안 함께 공부하니, 이제 교육혁신지구가 뭔지 알 것 같다. 그리고 여기에 모인 분들이 남구의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갈 것이다. 행복배움포럼이 내년에는 남구청, 남부교육지원청 관계자도 함께 참여하여 민·관·학 협력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밝혔다.

서민경_학부모기자

도서관의 비밀을 밝혀라

2015 검암초등학교 독서축제를 즐기다



지난 10월 30일 아침부터 검암초등학교 5층 강당이 북적북적 에너지가 넘쳤다. 매년 진행되는 독서축제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한국 십진 분류법 알기"로 진행된 이번 독서축제는 1교시부터 6교시까지 학년별로 시행 되었다. 이번 독서축제는 분류번호 각각의 부스를 만들어 아이들에게 각 분류번호의 의미와 책들을 소개하고, 간단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진행 됐다. 담임 선생님들도 점수판 목걸이를 걸고 다니는 등 함께 참여했다.

철학, 역사, 종교 등 부스 특색에 따라 '나의 좌우명 쓰기', '나의 실천 타임캡슐'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 되었다. 특히 300번대 사회과학 부스에서는 '모두 함께 하는 전통놀이'라는 주제로 반 전체가 참여하는 대문놀이, 제기차기 등이 이루어져 가장 인기를 끌었다.

5학년 한태우 학생 "독서축제에 와서 놀고 있었는데 도

서관의 비밀을 다 알아버린 것 같다"며 즐거운 표정을 지었다. 5학년 박은경 선생님은 "너무나 알찬 내용의 독서축제이다. 어머니들의 수고와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독서축제를 계획하고 진행 해준 사서 봉사자 어머니들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사서 봉사자 이미영 어머니는 "준비기간에는 아이들에게 조금 어려운 주제가 아닌가 생각 했으나, 하루종일 아이들과 활동하다보니 괜한 걱정이었다. 아이들보다 더 즐겁게 활동했고 그만큼 보람된 하루였다"며 소감을 밝혔다. 다른 봉사자 어머니들 역시 최고의 축제였으며 더 큰 축제로 만들기를 바라는 마음도 보였다.

검암동의 작은 학교 검암초등학교의 독서축제는 사서봉사자 어머니들의 수고와 노력이 보이는 각 공간들에서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활동하며 행복한 웃음을 짓는 풍성한 행사가 되었다.

고지혜_학부모기자



이 아이는 조금 있으면 학교에 다닙니다

초중고 교육비를 2조원이나 빼서
(초중고 학생 1인당 33만원)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것이
과연 부모님들의 바람일까요?

대통령 공약인 **어린이집 무상보육**,
초중고 학생들에게 떠넘기지 말고
중앙정부가 책임져 주십시오!

학부모가 주인공인 해원초 「사랑콘서트」



지난 10월 30일 저녁 7시 해원초등학교 평생 학습 학부모 동아리가 깊어가는 가을 밤 따뜻한 음악과 작품 전시를 감상할 수 있는 「사랑 콘서트(평생교육 예술제)」를 개최하였다. 이번 「사랑 콘서트」에는 해원초등학교 학부모 동아리인 벨리시마 합창단과 해원플루트 앙상블, 그리고 북아트부가 함께하였다.

부모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며 기획 외의 모든 것을 학부모들이 완성한 공연이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번 공연을 주최한 해원초 김정연 교장은 “많은 분들이 성원해주신 덕택에 성황리에 음악회를 마쳤다. 교직 생활 중 최대의 보람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평생교육 예술제는 학부모들의 재능기

이혜연_학부모기자

슬로우 리딩으로 함께하는 책 읽어주는 엄마

10월 12일 동암중학교에서는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부모들의 ‘행복한 아침열기 어울림 활동’ 참여가 시작되었다. 동암중학교는 올해 행복배움학교로 출발하면서 아침 조화를 읊애고, ‘행복한 아침 열기 어울림 활동’을 진행해왔다. 이번 학부모들의 어울림 활동 참여는 ‘슬로우 리딩으로 함께하는 책 읽어 주는 엄마’라는 주제로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동암중학교는 이날 1학년 5개 반을 대상으로 각 반에 한 명의 학부모가 들어가 슬로우 리딩 활동을 진행했으며, 앞으로 매주 월요일 어울림 활동 시간에 학부모가 지속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학부모들은 프레드릭, 행복한 청소부 등 총 8권의 책을 가지고 9월부터 책 읽기 준비 모임을 가져왔으며, 12월까

지 ‘책 속 내용 체험하기’, ‘아나바다 책 터’, ‘세상에 하나 밖에 없는 나만의 책 만들기’, ‘책거리’ 등의 행사도 계획 중이다.

한편, 동암중학교는 이번 행사로 책에 대한 흥미를

높여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은영_학부모기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동산중학교에서는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하는 '아띠클럽'이 운영되고 있다. 이는 교육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정서적 지지, 자신감, 학습 효능감을 필요로 하는 2학년 학생 대상으로 정규 수업 시작 전 1시간을 요일 별로 4~5명의 학부모들이 아이들에게 학부모들 본인의 재능을 기부하는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 더 따뜻한 시선이 필요한 학생들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그들에게만 편중하여 애정을 쏟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아띠클럽'의 학부모들이 그 틈을 채워 아이들이 즐거운 학교생활을 하도록 만들어 주고 있다.

총 21명 어머니들이 요일별로 풍선아트, 체육활동, 독후활동 등을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 학년말 '아띠클럽'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체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활동에서 적극성을 띠고 동시에 성적향상

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았다.

올해로 5년 차를 맞이한 이 모임은 지역민이면서 동시에 학부모인 강사들이 학교 선생님들의 지원 하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직접 실천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학부모회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남부교육지원청에서 발표를 하였다.

동산중학교 고정임 사회복지사는 아침 일찍 나오시는 학부모 선생님들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내 자녀만을 위해서가 아닌 더불어 살아가야하는 다른 아이들의 아픔도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학부모님들이 있는 한 모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신승정_학부모기자

학부모 기자단이 간다!

대기권 촬영, 호주와의 화상 수업 등 박문중 다양한 시도 눈길



지난해 송도로 이전 개교한 박문중학교가 다양한 시도로 주목받고 있다.

박문중학교는 이미 올 초 단위학교영재학급 학생들이 6개월간의 준비로 대기권 촬영에 성공해서 화제가 된바 있다. 학생들 스스로 GPS를 활용하는 방법, 우리나라 지역에서 대기권 바람인 편서풍의 이해 등을 학습하여 대기권 촬영에 성공했다. 이 실험에 참여한 2학년의 한 학생은 “교과서로만 하는 수업이 아니라 실험과 실습, 체험을 기반으로 한 수업을 통해 자신감과 가능성을 보게 됐다”고 말했다.

이 학교는 호주와 우리나라의 시차가 1시간밖에 나지 않는 것에 착안해 동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에는 수업기

회를 반별로 연간 약 8회에서 16회까지 늘려 우리 측은 한국문화를 소개하고 호주 측은 과학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 연수구청에서 지난해와 올해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 받은 박문중학교는 로봇과 3D 프린터를 활용한 교수 학습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학교 이상달 연구부장은 “교과수업 외 특별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선생님의 몫”이라며 “자유학기제가 시행되는 내년에는 더욱 많은 실험과 진로교육, 인문교육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혜정_학부모기자



어른 공경을 실천하는 인천성리중학교 '효피플' 봉사동아리

지난 10월 17일은 수업이 없는 토요일이었지만, 인천성리중학교 행복누리방에서는 평일수업시간보다 이른 오전 8시 30분부터 이 학교의 김동희 교육복지사와 '효피플' 동아리학생들이 즐겁게 케이크를 만들었다.

'효피플' 봉사동아리는 교육복지대상학생과 희망학생으로 구성되어 남동구 간석동에 소재한 성산복지관과 올 3월초 봉사활동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4월부터 매달 1회 지역 내 독거어르신을 찾아 뵙고 말동무가 되거나 간단한 집안일을 돕는 등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이날 학생들은 자신들이 정성껏 만든 케이크를 가지고 두 조로 나뉘어 독거 어르신을 방문했다. 학생들은 어르신의 안부를 여쭙며 케이크를 함께 먹은 후 어깨와 팔다리를 주물러 드리고 청소 등을 도와 드리는 것으로 방문일정을 마무리 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한 학생은 “예전에는 집에서 부모님께 자주 짜증을 냈는데 독거 어르신들을 찾아뵙다 보니 부모님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많이 생겼고 버스 등에서 노인 분들이 타시면 뒤쪽에 좌석이 있어도 앞자리에 앉으실 수 있도록 양보해 드리게 되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김동희 교육복지사는 “'효피플' 봉사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어른에 대한 공경과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좀 더 배울 수 있어서 대견스러웠으며, 앞으로도 학생들과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꾸준히 사랑을 나누어 줄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행복누리방은 교육복지사업을 운영하는 교실로써 학습, 정서, 문화, 체험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다.

주예아_학부모기자

세상에 작은 울림을 전하는 THE울림 봉사단

인천 관내 고등학생들로 구성된 THE울림 봉사단(단장 정석항공과학교1 조관호)은 올해 5월 50명의 단원이 1기 발대식을 가지고 국제구호 캠페인, 헌혈캠페인, 지역아동센터 멘토링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지난 봄에는 중증 장애인과 함께 계양산 등반을 통해 생애 처음 장애인이 정상에 오르는 기쁨을 맞이하게 도왔으며, 네팔지진이 발생하였을 때는 긴급모금활동으로 기금을 모아 네팔 현지로 보내기도 하였다.

또한 매월 2회 헌혈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에게 헌혈의 소중함과 필요성을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다.

지역아동센터와 자매 결연을 맺고 초등부 친구들과 학습도우미, 아이들과 함께 이루고 싶은 꿈 도우미 활동으로 함께 성장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세상에 작은 울림을 전하는 봉사를 실천하고 있다.

한편, THE울림 봉사단이 생각하는 봉사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조관호 단장은 “진심을 나누는 작은 행동의 시작”이라고 설명했다.

서민경_학부모기자



영종고등학교 “사제동행으로 함께하는 영종도보순례”



지난 10월 24일 영종고등학교는 학생과 교직원 약 100여명이 참여한 제1회 영종도보순례 행사를 성공리 마쳤다. 영종도 일대 60km를 1박 2일에 걸쳐 걷는 이번 행사는 영종고가 가진 지리적 장점을 살려 준비되었으며 중구청의 학교교육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1박 2일 영종도보순례에 참가한 2학년 우해민 학생은 "처음에는 과연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도 있었지만 학교 친구들과 특히 선생님들과 함께 했기에 60km를 완주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어려운 일도 이겨낼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자신이 살고 있는 영종도 곳곳을 걸으며 그동안 몰랐던 일본 군함 운양호 공격에 맞서

다 순직한 영종진이라는 역사유적지를 알게 되었고 공항과 관련된 다양한 시설 등을 알게 된 것도 매우 흡족하여 모교에 대한 뿌듯한 자부심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이지은 학부모는 "학생과 교사가 함께 어우러져 끝까지 완주하는 모습에 학부모로서 큰 감동을 받았다"고 전했다.

장후순 교장은 "이번에 처음 실시된 영종도보순례 행사가 학생들이 올바른 가치와 의미 있는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학교생활을 해야 할지를 자기 스스로에게 묻는 의미있는 행사로 지속되길 바란다"란 기대를 밝혔다.

변향미_학부모기자

퓨전음악을 만들어낸 6학년의 ‘아름다운 나라’



제24회 한일초 열린 음악 연주회가 지난 11월 10일(화), 서구문화회관에서 개최되었다. 1학년때부터 꾸준히 연습하여 마련한 6학년의 마지막 연주와 합창은 학생이나 학부모 모두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이날 공연을 관람한 1학년

학부모는 6학년의 공연을 보고 “아이들이 너무 멋지네요. 1학년도 6학년쯤 되면 저렇게 연주 할 수 있게 되나요?”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김미나_학부모기자

교육위원회는 학부모님을 대신해서 점검하고 확인합니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용덕위원장을 만나다

◎ 학부모기자단을 비롯한 학부모님에게 인사말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부모신문 발간을 축하드립니다.신문을 만들고 취재 하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부모기자단 분들의 노력이 인천 교육의 발전이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학부모님들이 아직 교육위원회 역할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께서 모든 가정을 일일이 신경 쓰기 어려워서 집집마다 엄마를 보내셨다고 하죠. 학부모님을 대신하여 학교나 교육청 사업에 신경 쓰라고 시의원, 그중에서도 교육위원이 있습니다. 급식모니터링이나 학교 도서관 도서 선정 등 과거에 비해 학부모님들이 학교와 교육청 일에 참여할 기회가 많습니다만 생업도 있으시고 하니 한계가 있을거예요.

교육위원회는 학부모를 대신하여 교육청과 도서관 등을 포함한 직속기관, 그리고 학교 교육여건 등 전반의 행정사무를 감사하는 대표기구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예산 편성권과 집행권이 있는 반면 대의기관인 의회에서는 예산안 및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사안의 심의 의결권과 감사자료 청구권 등이 있습니다.

◎ 단위학교의 운영위원회의 역할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규모의 크기는 다르지만 하는 일의 방식은 비슷비슷합니다. 시의회보다 큰 단위로 말하자면 국회가 있겠죠.

◎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는데요. 보람이나 성과랄까 기억나는 것이 있으신가요?

사무실에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 현장도 많이 방문하고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해서도 공부합니다. 학부모님들을 대신하여 아이들의 학습 환경 등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열악한 곳이 있으면 교육위원회가 나서서 행정지원을 촉구하고 실제로 개선된 곳이 많아요. 개선된 환경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학부모 기자단 편집위원회

북포초 어깨동무학교 친구사랑 동아리 활동

북포초등학교는 학교폭력예방 선도학교(어깨동무학교)로 선정되어 5학년, 6학년 학생 모두와 함께 친구사랑 동아리 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0월 23일 교실을 벗어나 백령도 풍돌해안에서 진행된 친구사랑 동아리 행사는 나눔이 잔디인형 만들기, 친구사랑 미니 게임 등 체험과 조작, 실천 위주의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학생들은 다양한 친구사랑 동아리 활동을 통해 친구를 사귀는 방법을 배우게 되고 더 밝고



즐거운 학교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 같다는 소감을 밝혔다.

김호진_학부모기자

현장체험학습 변화의 바람

‘쉽’ 과 ‘힐링’ 이 가득한 인화여고의 테마형 현장체험학습



한옥 펜션 숙박



한지 뜨기 체험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현장체험학습은 전반적으로 축소되었다. 안전에 관한 규정이 강화되었고 이에 따라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하는 학교 현장에도 다양한 변화가 생겨났다. 그 중의 하나가 테마형 현장체험학습이다. 많게는 10여대의 버스가 줄지어 떠나는 모습에서 벗어나 반별로 또는 주제별로 체험학습을 가는 학교가 늘고 있다.

<편집자 주>

인화여자고등학교는 지난 10월 2박 3일의 일정으로 한 학년을 3개 그룹으로 나누어 충청도와 전라도 일대를 소단위의 현장체험학습으로 다녀왔다.

당초 추진하던 제주도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이 교통편 등 일정상의 문제로 무산된 이후 소규모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오히려 교사와 학생의 만족도가 높았다는 평가다.

이번 현장체험학습 담당자인 인화여고 김미례 교사는 “쉽이 있는 힐링 여행을 테마로 2박 3일간 진행된 현장체험학습은 아이들에게 ‘감성’과 ‘쉽’을 준 말 그대로의 ‘힐링 여행’이었으며 소규모로 진행하다 보니 오히려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학생들 간의 추억도 깊이 쌓을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대체로 대규모의 학생들이 이동하면 밋밋한 리조트에서 숙박하는 것이 전부이지만, 숙소와 식사 장소의 선택이 조금 더 자유로웠다”고 밝혔다.

「문화와 쉽이 있는 힐링 여행」이라는 주제로 전라도 남원과 전주, 임실 일대로 떠난 1그룹은 감수성이 풍부한 시기의 여고생들에게 낭만을 심어주고자 기차를 타고 이동했다. 기존의 대규모리조트나 집단 급식 시설이 아닌 펜션형 숙소와 지방의 특색 있는 한정식은 소규모의 현장체험학습이었기에 가능했다.

2그룹은 「우리의 맛과 멋을 찾아서」

라는 주제로 전주 한옥마을과 순창, 무주 일대의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계획하였다. 한옥에서 숙박하고 전라도식 한정식, 콩나물 국밥, 떡갈비 등을 맛보았으며 한지 뜨기 체험이나 고추장 만들기 등 대규모의 현장체험학습에서는 어려운 활동을 경험했다.

이과 학급으로 이루어진 3그룹은 「역사와 함께하는 생태체험」을 주제로 부여와 서천 일대의 역사와 생태체험이 주를 이루었다. 특히 궁남지 주변 부영이 하이킹과 갯벌체험이 학생들의 인기를 끌었다. 62명 소단위가 떠난 현장체험학습이었기에 마지막 날 저녁은 펜션에서 준비한 바비큐 파티가 가능했다.

2학년 차승현 학생은 “현장 체험학습이 소단위로 진행된 덕분에 친구들과 선생님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깊이 들여다볼 수 있어 무척 기억에 남을 것 같다”며 만족감을 표현했다.

소규모 단위의 테마형 현장체험학습은 교사와 학생의 만족도가 높지만 아직 학교 현장에서 많이 적용되진 못하고 있다. 김미례 교사는 “현지 식당이나 숙박업체들을 담임들이 일일이 계약해야 하는데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너무 많아서 꺼리는 경우가 많았다”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겠지만 현장과 거리가 먼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상연_학부모기자



바비큐 파티

우리 선생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선생님,
이진영 선생님



지금까지 많은 선생님과 인연을 맺으면서 감사한 일도 많았지만 감히 선생님을 칭찬(?)하는 말을 한다는 것이 예의가 아닌 것 같아 그냥 넘겨왔습니다. 현대 멋진 선생님을 만난 사랑을 해도 되는 기회가 생겨서 때를 놓칠세라 용기를 냈습니다.

우리 담임선생님은 참 바쁘십니다. 공식적으로는 생활인성부장에 교내외 행사 진행하기, 학교에서 만든 단체 이끌기까지 넘치게 많습니다. 능력이 뛰어나고 재주꾼이어서 그런가 봅니다.

저는 새 학년 담임 발표를 보는 순간 반가움보다 걱정이 먼저였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부터 제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알림장 숙제’라는 걸 가져왔는데 ‘어, 선생님이 어찌려고 이런 걸 시작하시지?’라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학년 끝마무리가 되어가는 지금까지 놓치지 않고 해옵니다. ‘알림장 숙제’란 그 날 배운 것 중 핵심이 될 한 가지를 골라 간단하게 복습하거나 내일 수업의 중요한 것을 예습해서 흔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의 복습 습관은 물론이고 잘 알고 있다는 확인과 자신감을 갖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또 교실 한 곁에 항상 준비된 기타를 가지고 교과시간이나 자투리 시간에 상관없이 선생님께서 기타를 치기 시작하면 어린이들은 자연스럽게 노래를 부릅니다. 아주 흥겹게.

한 가지 더, 선생님은 어린이들과 같이 운동장에 나가서 놀이와 운동을 함께 합니다. 담임으로서 하는 단순한 교육과정 운영이 아니라 어린이들을 맘껏 풀어주는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5분 생각하고 질문하기, 쿠폰 모아서 선생님께 영화 보러가기 등등 자랑거리가 많습니다. 어린이들을 잘 이해하고 받아주는 선생님이 참 좋아 보입니다. 이제 제 걱정은 쓸데없는 것으로 끝나겠습니다.

이 분은 ‘인천굴포초등학교 이진영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분 어느 학교에 또 있으신가요?

류태숙_학부모기자

Hello,
Mrs. Kwon!



얼마 전 참관했던 상아초 공개수업, 아이들은 Hello, Mrs. Kwon!이라는 활기찬 외침으로 수업 시작을 알렸다. 교직생활 15년차, 그 중의 반을 영어전담으로 보냈다는 권정은 선생님은 현재 상아초등학교 영어전담교사이다. Mrs. Kwon의 긍정에너지가 인천교육현장에 또 하나의 활력을 더하기를 바라며 energizer Mrs. Kwon을 소개하고자 한다.

2년 전, 4학년이 된 첫날 아들이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헬레벌떡 들어왔다. 나이답지 않게 고지식한 아들은 담임선생님의 말과 행동에 신선한 충격을 받은 듯 보였고, 상당히 흥미로워했다. 매일 매일 수업이 끝나면 하나씩 하나씩 담임선생님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감정표현에 솔직하고 흥이 넘치는 선생님. 학생들 앞에서 스스럼없이 춤을 추고, 수업 중에 손가락 인형을 비롯해 다양한 소품을 활용하며, 아침활동 시간에 영어동화책을 읽어주시는 선생님. 반 아이들 하나하나의 특성, 장점, 그리고 부족한 점을 파악하여 각자에게 필요한 과제를 주시는 선생님. 방학과제 또한 아이들 각자가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각기 다른 과제를 주셨고, 그 과제를 완료할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다.

최근 2년 동안은 영어전담교사로 아이들의 영어수업을 책임지고 계시다. 담임선생님으로 권정은 선생님을 만나지 못 하는 아쉬움이 크지만, 영어시간 많은 아이들이 즐겁지만 결코 가볍지만은 않게 Mrs. Kwon을 만나고 있다. 책과 노트, 읽기와 쓰기, 첩트와 율동 등 이런 예상 가능한 수업방식은 Mrs. Kwon의 수업에서 주인공이 아니다. 준비가 간단하지만 아이들이 함께하기 쉽고 여러 번해도 질리지 않는 놀이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한다는 Mrs. Kwon은 오늘도 6학년 학생들과 “I am ground ~” 자기소개하기 놀이를 수업에 활용하여 한바탕 놀고 나왔다.

김현미_학부모기자

〈배려〉와 〈사랑〉,
이 두 단어로
꼭 찬 학급을
만들고 싶어요



16년간 교단에 서면서 늘 아이들이 즐겁게 공부하고 체벌 없이 어떻게 하면 생활지도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는 선생님이 있다. 해원초 곡세선 선생님 흔히 사용되는 상점 제도가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다고 느끼고 다른 선생님의 학급운영방침도 참고하여 ‘뽕뽕이 학급온도계’란걸 만들었다. 다른 반과의 차이라면 개인 상점판인 <뽕뽕이 사과나무>와 학급온도계가 연동되도록 한 것이다. 개인 상점판을 통해 얻은 쿠폰을 이용하여 학급온도계도 올릴 수 있도록 하여 개인의 성취와 학급전체의 성취를 동일시하여 경쟁 대신 협동을 유도하는 것이 선생님의 취지다.

“학기 초에는 가끔 나만을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급 온도계’의 참뜻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누가 모자라지?, 누굴 도와줘야 하지란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변화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100도 달성시 받는 ‘쌤이 쓴다’ 쿠폰이 아이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아요.”

아이들은 학급온도계를 하며 친구들을 도와주고 생각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작은 경험이 나를 사랑하고 남을 배려하는 학급을 만든다.

“배려는 마음의 여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조금의 여유를 가지고 있으면 남을 배려할 수 있고 작은 배려가 있는 학급은 행복하지 않을까요? 또한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어린이는 행복하고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어린이는 늘 화가 나있고 불만이 많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기 힘들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아는 어린이는 자신감이 넘치고 자존감이 높고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를 않아요. 저는 배려와 사랑, 이 두 단어로 꼭 차 있는 학급을 만들고 싶어요”

오늘도 선생님은 배려와 사랑이 가득한 아이들을 만나러 교실 문을 연다.

이혜연_학부모기자

사랑합니다

등굣길
교문 앞에서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함께
하이파이브를 하며 외치는 소리입니다.

손과 손이
맞닿아 웃음꽃을 피웁니다.
매일매일 이어지는 아침맞이 인사, 아이들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학교가 가고 싶습니다.

아침이 기다려지는 학교,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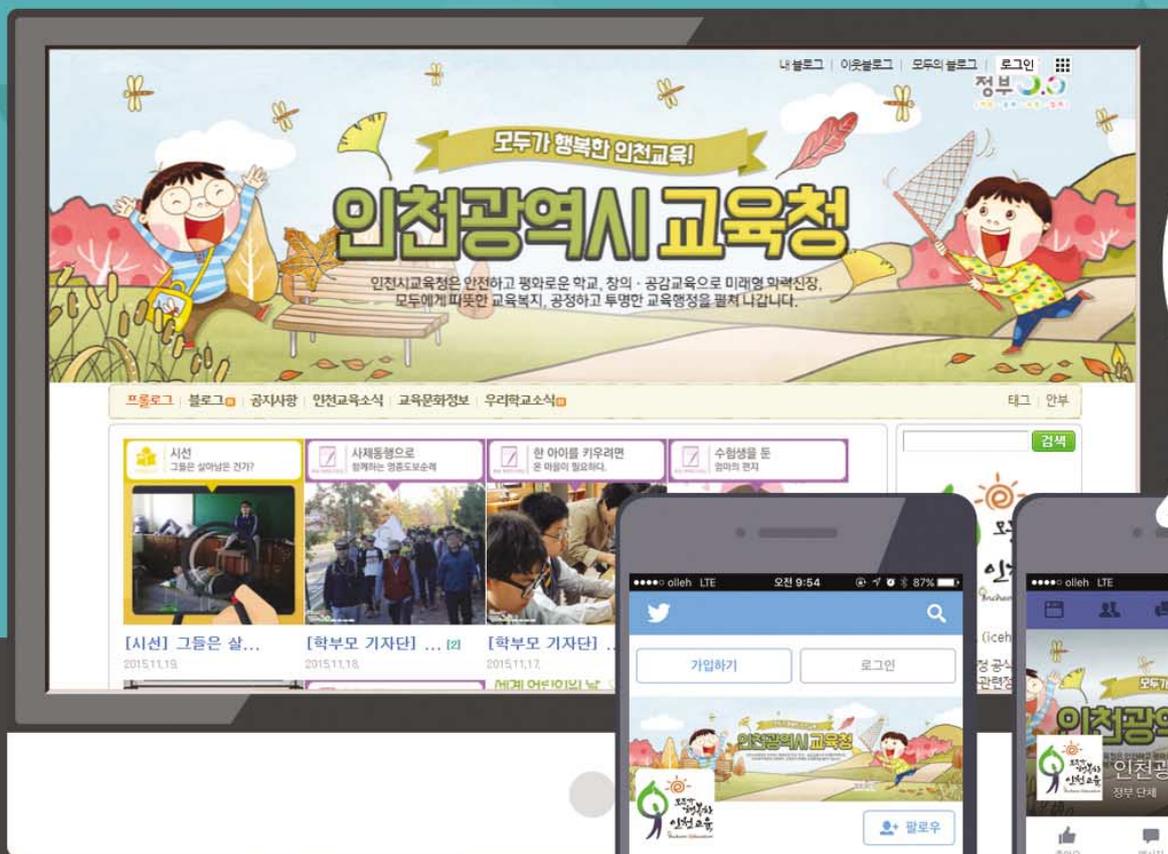


인천 교육 소식을 한 눈에 보는 법!

인천광역시교육청 SNS로 통하자!

속이 짝찬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 소식!

인천교육소식, 교육문화정보, 인천학교 소식을 인천광역시교육청 SNS에서 만나보세요!



[블로그]
<http://blog.naver.com/icehongbo>

[트위터]
<https://twitter.com/icehongbo>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icehongbo>

[카카오토리]
<https://story.kakao.com/ch/icehongbo>

